

# 人口分散을 위한 國土綜合개발

National Land Development for the Dispersion of Population

金燦默 / 공학박사, 김찬목건축사사무소 대표  
by Kim, Chan-Mook

우리나라의 급속한 경제발전은 사회의 변화와 함께 우리들의 생활양상도 바꾸어 놓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국민이 기본적으로 두려아할 庶民住宅難의 해결과 文化的인 住居環境문제, 교통의 혼잡 등은 아직도 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

더우기 절대 인구의 대다수가 서울에 편중되어 살고있는 것은 國土綜合開發計劃면에서 매우 심각하다. 한편 자연생태를 돌아볼 때에 철새들은 그들에게 적당한 환경이 주어졌을 때에는 스스로 돌아와 보금자리를 만들지만 그 보금자리가 오염되었거나 위험이 도사릴 때에는 다른곳을 찾아 떠나게 되는 것이다. 우리의 수도서울의 경우 수백년에 걸쳐 많은 인구가 모여들기만 하였던 이유는 이러한 현상과 마찬가지로 아닐까?

그 이유는 여러가지가 있었으나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생활의 편리함 때문일 것이며 타지방보다

취업·교육·경제·문화혜택 등이 우선되었기 때문일 것이다. 하지만 조금은 경제적으로 부유해짐에 따라 정서적인 여유를 누리고 싶은 사람들은 뻥뻥한 건물, 불비는 자동차의 내뿜는 매연을 피해 전원지대를 찾아 주거환경을 옮겨가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이는 극히 일부의 국한된 일이며 대부분의 서민층들은 취업과 생계를 위하여 서울을 떠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고층빌딩을 지으려 할때 建築士들은 우선 그 핵을 구상하여 한 건물의 動線計劃을 잡아 설계된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수도도 조선시대 이후로 서울이었지만, 오늘날의 중심은 경기도와 중부권으로 확산해서 보아야 옳을 것이다.

한마디로 우리나라는 많은 중소도시가 산재하고 있으나 오로지 오늘을 중심으로 발전시켜 왔다고 볼 수 있겠다. 물론 서울이 국가의 심장부임으로 집중적인 발전에

박차를 가한것도 중요한 일이겠으나 이제는 국가전반적인 개발계획차원으로 발전시켜 나갈때가 되지않았나 생각한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때 서울집중의 人口分散과 國土의 綜合的인 開發에 대하여 몇가지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서울 중심의 위성도시로 연결된 순환도로의 건설. 경기도에는 9개의 위성도시가 서울을 중심으로 원을 그리듯이

인구의 증가로 인한 택지의 보유는 필요불가결의 문제이다. 宅地의 平面擴散化로 많은 농경지와 옥토들이 도시화로 잠식되어 가고 있는 것도 이러한 이유에서 생긴 부득이한 일일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비전문가의 무계획한 개발을 억제하고 책임있는 地域環境開發로 저렴한 서민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 산림의 훼손이 아닌 잡목산지와 야산개발의 적극적인 권장을 해야 할 것이다.

둘러쌓여 있어 마치 서울의 울타리 역할을 연상케한다.

그런데 이들 위성도시(성남시, 안양시, 부천시, 의정부시, 구미시, 하남시, 광명시, 김포시, 미금시)에서 타시로 가고자 할때의 생기는 교통문제는 서울시 교통 문제와 분리시켜 생각할 수 없는 문제가 뒤따른다.

예를들어 성남시에서 인천을 가고자 했을때 반드시 교통이 복잡한 서울을 거쳐서 또

병목현상을 배가시켜주는 경인고속도로를 이용해야만 하는 이중 삼중의 불편함이 있다.

이는 교통체증을 가중시킴은 물론 에너지절약에도 큰 손실을 초래한다고 볼 수 있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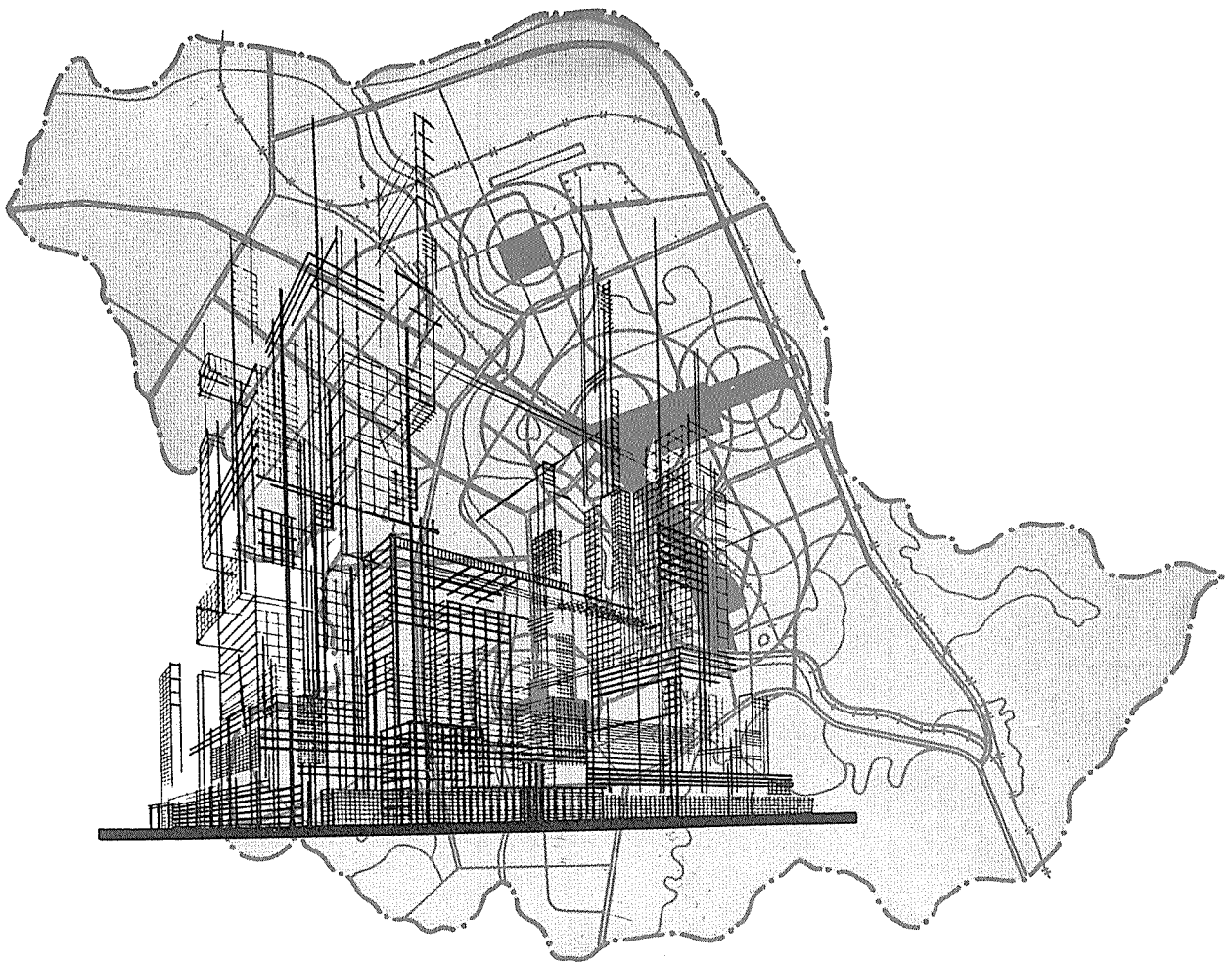
이러한 점으로 보아 우선 서울과 경기도를 진입하는 각 도로의 병목현상을 해소시키는 방안이 필요하며 서울을 둘러싼 위성도시를 연결하는 圓形外廓循環道路의 신설이 교통난을 해결하는 최우선이라고 하겠다. 외곽순환도로의 신설은 서울을 통과하지 않고 글자 그대로 외곽을 돌아 남북을 오갈 수 있으며 지방화시대를 맞은 이 시점에서 볼때 전국지방으로의 연결통로역할과 위성도시로써의 역할을 담당함으로써 중간인구의 소화와 근린주거 형성을 갖게 해줄 것이다.

둘째, 우리나라는 삼면의 海岸開發과 民間資本留置. 정부에서는 낙후된 서해안을 개발하기 시작하여 많은 진척을 보고 있으며 그 개발과정을 보고 민·관이 함께 찬사를 보내고 있다.

이는 3편이 바다로 둘러쌓인 우리국토를 감안했을때 중요한 정책으로 국민에게 공감함을 주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서해안 개발에 여세를 몰아 다시 동해안 남해안 전체를 개발한다면 해안마다의 연결된 순환도로도 이어질 것이며 이렇게 이어진 해안은 각해안별로 거점도시인 항구도시 개발과 함께 경관종교상쾌한 휴양지인 海岸觀光都市를 건설하므로써 인구도시집중을 해소할 수 있는 길이라 하겠다.

그러자면 국가적인 차원에서의 개발도 중요하다 하겠으나 보다 빠른 개발을 위해서는 민간투자유치에 의한 정책적인 배려로서 海岸據點都市를 유치하는 것도 생각해볼 문제라 하겠다.

물론 해안개발의 民間投資유치란 부동산투기가 아닌 일정기준의 등록업자로



전문가들에 의한 開發事業임을 두말할 나위도 없다.

세째, 인구의 증가로 인한 택지의 보유는 필요불가결의 문제이다. 宅地의 平面擴散化로 많은 농경지와 옥토들이 도시화로 잠식되어가고 있는 것도 이러한 이유에서 생긴 부득이한 일일 것이다. 한정된 평야를 보존하고 기름진 전답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대안이 요구되나 간단히 간추려보면 지금 이 시간에도 잠식되어가는 옥토와 평야를 되살릴 수는 없겠으나 앞으로의 문제는 시급한 대책이 필요하다 하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비전문가의 무계획한 개발을 억제하고 책임있는 地域環境開發로 저렴한 서민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 산림의 훼손이 아닌 잠복산지와 야산개발의 적극적인 권장을 해야 할 것이다.

네째, 地方農工團地와 聚落構造의 확산, 산업의 발달과 국민생활 수준의 향상으로 인한 농공업의 발전은 농공단지의 부지를 대폭적으로 확산할 필요가 있게 되었다. 더욱 인구의 도시집중은 농공단지 이후의 필요성을 더욱 인식하게 하였다. 이러한 문제로 볼때 지방농공단지는 앞서 말한 택지조성을 위한 산지개발과 같이 적당한

입지선정에 따라 지방의 야산개발을 위주로 현재보다 대거 추진되어야 하겠다. 아울러 농공단지에 종사하는 인구를 위한 聚落構造의 병행도 불가분의 관계라 할때 취락구조는 가능한 그 지역실정에 맞도록 주거환경을 개선하되 지금까지 일괄적으로 해오던 평야잠식의 취락구조개선을 止揚하고 산간·임야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협소한 국토를 적극 활용하는 농공단지화 종합개발을 하여야 할 것으로 본다.

다섯째, 中央集權制의 段階的인 지방으로의 讓位에서 제기한 모든 문제는 중앙집권제의 行政力과 정치·경치·사회·문화·교육등 전반적인면의 지방이양이 수반되었을 때에 더욱 효과적이라 생각한다.

중앙집권제는 단계적으로 지방을 단위화함으로써 서울 중심의 모든 편중을 없애고 지방권 육성개발을 더욱 확산해야 하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부산 대구 광주 대전 등의 地方中心圈의 필요성이 地方化時代를 앞당겨 실시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중앙행정부처의 이동은 행정력을 수행하기 위해서 생기는 제반 비경제적인 면을 고려해볼때 또 인구분산정책의

일환으로서도 중요한 비중을 차지한다고 볼 수 있다.

결론으로 人口分散을 위한 國土綜合開發計劃은 서울을 중심으로 한 순환도로의 건물로서 교통난을 해소해야 할 것이며 해안개발을 통해 3면이 바다로 둘러쌓인 한반도를 아름다운 항구도시 위락지구로서의 해안거점도시 건설을 유도하는 것이다.

뿐만아니라 주택지의 효율화를 위해서는 평면확산화를 지양하고 산간지대 개발의 유도를 도모해야 할 것이며 이들 모두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행정력의 수반은 중앙집권의 정치·경제·사회·문화 전반을 단계적으로 지방으로 이양하도록 해야한다. 또한 自生的으로나 정책적 배려로서나 민간자본이 지방개발의 유치되는 계기가 되기도 하는 이 종합개발은 장기적인 안목으로 해결해 나갈때 앞으로의 2천년대 도시계획의 이정표 역할을 할것임이 분명하다.

이러한 국토종합개발로 인해 서울로 집중되는 인구를 인위적이 아닌 자연발생적인 철세의 이동처럼 스스로 분산할 수 있다면 이 사업의 소기의 목적을 이루었다고 평가받을 것이다.